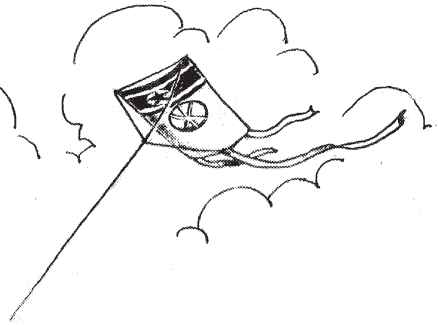




연이 오른다



정 향 미

래일부터는 손뽀아 기다리던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나 나는 따별에게 쏘인것처럼 얼굴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홍, 분단위원장이면 다야? 따별같은 거.》

방금전에 교실에서 있었던 일때문입니다.
...

《동무들, 멀지 않아 오게 될 정월대보름날을 맞으며 학교소년단위원회에서는 민속놀이를 가지고 분단별경기를 진행하기로 했어.》

《아이, 좋아!》

《사기나누나!》

분단위원장인 봄향이가 경기소식을 알려 주자마자 동무들은 법석 떠들었습니다.

너동무들은 짹짹 손뽀까지 쳤습니다.

《줄넘기도 있겠구나. 참, 바둑겨루기도 하니?》

물음소나기가 쏟아질 때마다 봄향이는 언방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분단위원장동무, 날 씨름경기에 내보내주렴. 옛-싸! 배지기로 단박에 이길테야.》

2소년단반장인 일남이가 제일선참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당장 씨름장에 나서거나 한것처럼 둘러메치는 동작을 해보였습니다.

《하하하-》

《호호호-》

동무들은 모두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렸지만 나의 생각은 온통 바둑겨루기에 가있었

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둑명수인 할아버지에게서 바둑을 배운 까닭에 나는 바둑겨루기에 선수로 나가면 꼭 이길 자신이 있었던것입니다. 물론 봄향이가 양보해준다면 말입니다.

봄향이도 바둑을 아주 잘 두는데 그 앤 벌써 유치원시절에 바둑을 잘 두는 애로 소문이 자자하게 났던 동무입니다. 텔레비존에도 크게 소개되고...

하지만 뭐랍니까.

봄향이는 유치원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와 한책상에서 함께 공부한 딱친구이고 지금은 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대해주는 우리 분단위원장인걸요 뭐.

봄향이는 함박꽃처럼 활짝 웃으며 동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경기종목을 분담하겠어. 오늘부터 훈련이랑 해야 하니까.》

나는 흐뭇한 마음을 안고 봄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와 눈길이 마주치자마자 한쪽 눈을 깜쩍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딱친구이고 또 학습의 기준소년단반장이 영림이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말없는 부탁이었던것입니다.

봄향이는 동무들을 한번 쪽 훑어보고나서 마치 잘 감은 실통구리를 풀어내듯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김일남동무, 리금혁동무... 동무들은 씨름경기에 참가해야겠어.》

《야!》

《전옥진동무, 박금주동무, 김연주동무, 동무들은 즐넌기! 박명선동무...》

(에-참, 내 이름은 언제 부르려는걸가.)

나는 속이 막 빠직빠직 타드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봄향이에게 박은 《침》이 있는지라 애써 참았습니다.

정말로 씨름경기에 참가하게 된 일남이는 입이 함박만 해서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피- 고좁한걸 가지구. 좀 점잖게 있어. 난 말이야...)

나는 울렁이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의자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바둑겨루기인데...》

봄향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분단동무들이 와- 하고 환성을 터쳤습니다.

요란한 그 환성은 그대로 동무들이 나에게 보내는 절대적인 지지와 축하의 함성처럼 들려왔습니다.

귀전에서는 요전번 일요일에 바둑겨루기에서 이긴 나를 두고 봄향이가 하던 말까지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동문 확실히 바둑을 잘 두는구나. 바둑명수로 이름을 날렸던 고구려의 도림이라는 사람처럼 영림동무도 이름에 〈림〉자가 들어가서 그런게 아닐가? 호호호-》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벅글벅글하게 입을 벌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뒤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줄이야...

《바둑경기 1등이야 우리 분단이 먹고났지 뭐. 아, 바둑명수로 소문이 자자한 분단위원장동무가 있잖아.》

《그래그래.》

순간 나는 마치 전기에라도 감전된듯이 온몸이 짜르르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나는 봄향이의 얼굴에 마치 구멍이라도 뚫을것처럼 눈길을 박았습니다.

봄향이도 동무들의 칭찬이 싫지 않은지 보조개를 살짝 짓고나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구... 참, 이 종목은 운동회마감을 장식하는 경기인데 아주 중요한 경기야.》

봄향이가 잠시 머뭇거리자 우리 소년단

반에서 몸집이 제일 뚱뚱해서 《북극곰》이라고 불리우는 성복이가 불쑥 일어났습니다.

《특별종목이겠지. 내가 참가하면 안되겠니?》

결에 앉아있던 일남이가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령리한 너구리처럼 불룩한 성복이의 배를 손가락으로 꼭 찢었습니다.

《급하기란... 찰떡먹기경기가 있대. 찰떡!》

《찰떡? 아이쿠, 난 안되겠다야.》

찰떡소리가 나오자마자 성복이는 자라처럼 목을 움츠렸습니다. 언제인가 찰떡때문에 체기를 받은적이 있었던것입니다.

《호호호- 동무들두 참... 연띠우기경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 분단에서는...》

나는 바늘에 찔린듯이 와뜰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글쎄 연띠우기경기선수로 내가 뽑혔던것입니다.

《뭐, 내가?! ...》

《분단열성자동무들이 모두 영림동무를 추천했어. 이번 연띠우기경기에선 꼭 1등을 하기 바래.》

《아니, 난...》

봄향이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동무들이 짜락짜락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응원나팔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려오는 박수소리는 마치 봄향이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하는듯싶었습니다.

(또 연을 띄우란 말이야?)

동무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주었지만 나는 아주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대륙간탄도로켓들이 썽썽 날아오르고 초음속비행기가 하늘을 헤가르는 최첨단시대에 초급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시시하게 연이나 띄우다니...

나는 별치않은 놀음놀이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듯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날개를 벌름거리며 봄향이에게 성난 인상을 지어보였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나는 책가방을 둘러메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함께 가자고 소리치는 봄향이도, 왜 그러느냐고 묻는 소년단반동무들도 모두 뒤에 남기고말입니다.

《쳇, 그래두 딱친구야? 분단위원장이라

구? 친한 동무의 속마음도 하나 알아주지 못하는 애가 무슨 분단위원장이야. 흥!»

씩씩거리며 내가 마을어구에 들어서는데 어느새 달려왔는지 봄향이 내 등을 찰싹 쳤습니다.

《아이참, 함께 가자는데 왜 그냥 혼자 가니?»

봄향이는 가쁜숨을 할딱할딱 내쉬었습니다.

《동무야 콤파스가 있는데 어련히 따라오지 않으리.»

《콤파스?»

봄향이의 두눈이 포도알처럼 울퉁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시치미를 뱉 따고 볼부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잖니. 넌 다리가 콤파스처럼 기니까 줄넘기랑 또 거 뭐라드라? 오, 그거, 고무줄놀이. 그거랑 잘하두나.»

나는 참대처럼 키가 늘씬한 봄향이를 아니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마나, 동문… 어쩔 그렇게 말할수 있니.»

봄향이의 얼굴은 잘 익은 도마도처럼 빨개졌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나는 자동보총의 런발사격처럼 냅다 말했습니다.

《난 막 창피해죽겠어. 남자라는게 시시하게 돌부처처럼 한자리에 우두커니 서있지 않으면 흥, 겨우 뒤걸음이나 치면서 줄이나 당겼다 놓았다 하는 연띠우기? 내가 뭐 코흘리개야?»

나는 생각해볼수록 숨이 콕콕 막혀오는 것만 같아 성난 황소처럼 그냥 씩씩거렸습니다.

《동무때문에 내 꼴이 뭐가 됐나 봐. 초음속비행기를 타는 비행사가 되겠다던 내가 글썽… 이번에두 동무의 손에 쥐어진 연줄을 타고 방향없이 어질어질 따라다니는 연신세가 되었던 말이야.»

《영림동무, 전번 봄철운동회땀…»

《봄철운동회? 흥, 그때 소린 하지두 말아. 지금두 막 창피해죽겠는데… 어쨌든 연띠우기는 싫어.»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흥, 제가 바둑경

기에 나가고싶으니까 날 막 함정에 몰아넣는구나.) 하는 생각이 굴뚝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잔뜩 뿔을 세우고 고집하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올해 봄철운동회때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봄향이와 함께 연띠우기경기에 나갔었습니다.

《…영림동무, 동문 나랑 같이 연띠우기경기에 나가게 됐어.»

《뭐, 연? 하하하— 아니, 유치원꼬마들처럼 연띠우기는 또 뭐야?»

나는 교실이 떠나가도록 웃었습니다.

《아이참, 동무야 늘 비행사가 되고싶다고 하지 않았니.»

봄향이는 여전히 새물새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비행사가 되고싶다고 했지 언젠을 띄우고싶다고 했니?»

《비행사가 되고싶은 그 꿈을 나랑 함께 연에 담아시고 하늘높이 띄우자는거야. 비행기연!»

나는 아까보다 더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만뒀. 최첨단으로 만든 초음속비행기가 뭐 유치원애들 장난감같은 연과 같은줄 아니. 난 차라리 그 시간이면 컴퓨터로 비행기오락이나 하겠다.»

봄향이는 머루알처럼 새까만 두눈을 동그랗게 떠올렸습니다.

《동문 연띠우기가 어쨌다고 그러니? 전국연띠우기경길 못 봤니? 거기엔 우리포레는 물론 상급생오빠, 언니들도 있었어.»

나는 할말을 더 찾지 못했습니다. 봄향이의 말은 사실이였으니까요.

《영림동무, 난 동무가 맨 앞장에서 연을 높이높이 띄웠으면 좋겠어. 초음속비행사가 될 마음으로 말이야.»

봄향이의 끈질긴 설복에 나는 그만 두손을 들었고 결국에는 연띠우기경기에 선수로 나가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기 바쁘게 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봄향이의 말처럼 비행기모형을 본판 연을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만들어보았지만 매번 마찬가지로
였습니다.

그렇다고 봄향이나 다른 동무들의 도움을
받고싶지는 않았습시다. 어쨌든 연띠우기도
경기였으니까요.

혼자서 끙끙거리며 밤새도록 연을 만든 나
는 《시험비행》도 한번 해보지 못한채 다
음날 아침 헐레벌떡 학교운동장으로 달려나
갔습시다.

그러나 경기결과는 기가 막혔습시다.

땀까지 뺀뺀 흘리며 연을 띄웠지만 나는
연띠우기경기에서 학교적으로 꼴등을 하였
습시다.

내가 만든 연은 하늘을 조금 날으는것 같
더니 그만 돌덩이처럼 땅바닥에 곤두박혔고
다시는 날아오르지 못했던것입니다.

몇번이나 다시 띄웠지만 도루메기가 되어
결국 망신만 크게 당했던것입니다....

나의 속생각을 알아차렸는지 봄향이 아
까보다 픽 살뜰하게 말했습시다.

《영림동무, 그땐 연을 잘못 만들어서 그
렇게 된거구. 자, 이걸 받아. 땅바닥에 떨어
진 연처럼 납작해졌던 명예를 하늘높이 떠
올려야지?》

나는 봄향이 내미는 기억기를 바라보며
두눈을 쪼프렸습시다.

《여기에 든 자료들을 보느라 연띠우기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잘 알수 있어.
우리 이번엔 힘을 합쳐 연을 잘 만들어보자.
분단동무들도 모두 힘껏 돕겠대. 그럼 1등은
문제 없을거야.》

(흥, 명예? 도와준다구? 그렇게 말한다구
내가 뭐 연띠우기경기에 나갈줄 알구.)

나는 봄향이 연줄이 되어 하늘높이 날고
싶은 나의 마음을 꾀꾀 동여매놓는것만 같
아 책가방끈을 버씩 추슬러올리며 통명스럽
게 쏘아붙였습시다.

《됐어됐어. 이랬든저랬든간에 난 동무때
문에 다시는 어질어질한 연신세가 되기 싫
단 말이야. 한번 〈추락〉을 했으면 됐지 뭐
가 모자라서 또 한단 말이야. 그렇게도 연띠
우기가 흥미있으면 동무나 나가. 그리고 그
런 시시한 놀음놀이때문에 다시는 날 건드
리지 말어.》

봄향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가 나의 손을

살머시 잡았습시다.

《영림동무, 그러지 말어. 동무의 꿈이자
우리모두의 꿈이 아니겠니? 그 꿈을 연에 담
아시고 동무가 이번 경기에서 1등을 하면 분
단동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하지만 나는 봄향이의 손을 뿌리치며 발걸
음을 옮겼습시다.

별안간 봄향이 등뒤에서 따벌처럼 콧코
쏘아주었습시다.

《동문 정말 한심해. 동문... 비행사가
될... 자격이 없어.》

《뭐야? 말 다했어?》

나는 몸을 휙 돌리고 두눈을 무섭게 부릅
떴습시다.

《동문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조상이 무엇
인지 알거나 하고 그러니?》

《뭐, 조상? 아니, 이젠 나한테 조상타령
까지 하려드느구나.》

나는 눈앞에 드리워져있던 나무가지들 한
손으로 힘껏 쳐버렸습시다. 그 바람에 사슴
뿔처럼 삐죽삐죽하게 뻗어있던 나무가지가
부르르 떨었습시다.

봄향이의 두눈이 흰토끼처럼 빨개지기 시
작했습시다. 그러거나말거나 나는 흥 코바
람을 불었습시다.

《흥, 내가 앞으로 진짜 초음속비행기를
타는 비행사가 되면 어쩔래?》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돌조각상처럼 서
있던 봄향이는 《종이비행기나 타겠지 뭐.》
하더니 다짜고짜 내 손에 기억기를 쥐여주고
는 퐁퐁 뛰어갔습시다.

(뭐? 종이비행기?)

나는 봄향이를 향해 주먹을 불끈 들어보
였습시다. 정말이지 비행사도 되어보기 전
에 땅우에 곤두박힌 연신세가 된 기분이였
습시다.

나는 기억기를 바지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그 자리에 퍼더버리고앉았습시다.
그리고는 목이 휘도록 하늘만 올려다보았습
시다.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하늘은 어찌나
푸른지 꼭 파아란 물감으로 물들여놓은것만
같았습시다.

(흥, 연을 띄우지 않는다고 비행사가 못될
가. 내 꼭 초음속비행사가 되어 본때를 보여

줄레다. 이 영림이는 결코 종이비행기나 탈 사람이 아니라는데!)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난 나는 발밑에 놓여있던 대추알만 한 돌맹이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성난 호랑이눈섭을 하고 집뜨락으로 들어 서는데 《하나, 둘, 셋...》 하며 셈을 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형, 어서 받아—》 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나에게로 썩 날아왔습니다.

얼결에 받아들고보니 동생 복림이가 차넘긴 제기였습니다.

《제기? 이건 또 뭐야?》

나는 신경질적으로 복림이의 제기를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저저, 내 제기!》

길게 포물선을 그리며 뒤울안으로 날아가는 제기를 보자 복림이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몰라, 몰라, 잉. 내 제기 당장 찾아줘.》

《그런 시시한 물건 짝은 찾아서 뭘해.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공이나 냅다 차.》

나는 괜히 애꿎은 동생에게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씨— 우리 반 선생님이 날 보고 이번 민속놀이경기때 제기차기경기에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뭐. 그런데 형은 뭐야.》

그렇지 않아도 오동통한 복림이의 두볼이 밤알을 문것처럼 불룩해졌습니다.

《너 정말 가만있지 못하겠네. 형의 기분 같은건 모른다는거지. 어서 나가, 어서.》

나는 대문을 와락 열어제꼈습니다.

《씨— 형 미워.》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뛰여가는 동생을 멍하니 서서 바라보고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선가 이런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물결 작은 물결
바람이 불면 돌아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어 깔깔 웃는 녀동무들의 웃음소리가 선 들바람을 타고 계속 들려왔습니다.

노래는 봄향이네 집쪽에서 울려나오고있

었습니다.

올바자너머로 봄향이네 집쪽을 바라보면 나는 그만 입을 하 벌리고말았습니다. 글썩 토끼처럼 짱충짱충 줄넘기를 하는 녀동무들 곁에 일남이를 비롯해서 우리 분단 남동무들이 서있었던것입니다.

동무들은 박수까지 쳐주며 녀동무들을 응원해주고있었습니다. 어느새 달려갔는지 복림이도 성수가 나서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첿, 잘들은 논다.)

나는 동무들이 모두 봄향이의 편이 된것만 같았습니다. 동생 복림이까지도...

그래서 그들을 향해 혀를 빼죽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쾅 하고 닫고 빗장을 걸어놓았습니다.

이악쟁이 봄향이가 우리 분단동무들을 몽땅 휘둥해가지고 다시 나타날건 뻔했으니까요.

(봄향이와 입씨름을 해야 소용없어. 괜히 시간이나 낭비하지.)

나는 책상앞에 마주앉아 휴대용컴퓨터를 기동시켰습니다. 잠시후 방안에는 음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행사의 노래》의 선율이었습니다.

한참 신이 나서 온몸을 들썩거리고있는데 동생 복림이가 방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형, 형네 반 동무들이 우리 집으로 와.》

《뭘?》

나는 영치에 용수철이라도 달린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넌 어떻게 들어왔니? 대문을...》

《울안으로 들어왔지 뭐.》

복림이는 마치 경찰병이나 된듯이 아주 으쓱해하였습니다.

창문밖으로는 벌써 봄향이네 집 뜰안에서 나와 우리 집쪽으로 오고있는 동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단났구나. 어쩔가?... 가만있자, 복림이를...

《애 복림아, 너 이제 우리 동무들이 오거든...》

나는 복림이를 슬슬 얼리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싫어. 우리 반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면 나쁜 학생이 된다고 했는데 뭐.》

《요건, 그저 선생님밖에 몰라.》

동생의 코등을 툭겨주던 나는 문득 제기 생각이 났습니다.

《복림아, 형이 새 제기를 만들어줄게. 알락달락한 평털로 만들거던. 그러니 나 집에 없다고만 해라.》

《피- 거짓말.》

《정말이야.》

복림이는 오포기처럼 두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정말 만들어주지?》

《그렇지 않으문.》

《거짓말하면 형은 까마귀야.》

《그래그래. 까마귀다.》

코밑을 쓱 훑치며 방문을 나서던 복림이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형, 어디 갔나 물으면 어찌나?》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하렴.》

《형, 머리가 아프면 약 먹어야 하지?》

복림이는 속이 한줌만 해졌는지 자꾸만 캐여물었습니다.

《그래. 자, 빨리빨리.》

나는 조금증을 애써 누르며 복림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밑에 앉아 귀를 강구었습니다.

《영림동무-》

《영림아.》

동무들이 소리치기 바쁘게 복림이가 방문을 열고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형은 집에 없어.》

복림이는 아주 푹푹하게 말을 했습니다.

(잘한다, 잘해.)

나는 주먹으로 무릎을 살짝 때렸습니다.

《정말이야. 머리가 아파서 령신환 먹으러 갔어.》

《령신환?》

《머리가 아픈데 령신환을 먹니?》

《정말?》

《하하하-》

《호호호-》

배를 그러안고 웃는 동무들의 얼굴이 창문 보사이로 얼른얼른 보였습니다.

(젠장, 병원에 갔다 하라 했지 언제 령신환 먹는다고 했나.)

하면서도 늘 배가 아플 때마다 령신환을 먹던 동생이 생각나서 킁- 웃고말았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니?》

역시 봄향이는 따벌이였습니다.

복림이는 겁을 먹고 머리를 끄덕이는지 아니면 가로젓는지 전혀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왔구나.》

뜻밖에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쿠, 야단났구나.)

나는 얼른 침대우에 뛰어올라갔습니다. 누워있어야 할지 어쨌으면 좋을지 신통한 수가 통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린 영림동무랑 학습반하러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가자. 복림아, 형님더러 동무들이 왔다고 해라. 아마 컴퓨터를 하느라 정신없을게다.》

나는 너무 급한 나머지 부엌문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이거 점점 일이 별나겐 돼가는데... 이제 복림이랑 봄향이랑 어머니에게 다 말하겠지. 그럼 어머니 성이 나서...)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영림동무가 정말 없구만요.》

《없다니?》

어머니가 동생을 바라보는지 복림이가 떠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형... 형님이... 집에 없다고 하... 하렸어요.》

《뭘? 하하하-》

온 집안이 웃음폭탄을 터쳐놓은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형때문에 우리 복림이만 나쁜 애가 되는

구나. 이 애가 정말...》

나는 살그머니 문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들리기 전에 얼른 사라져야지. 나때문에 괜히 동생까지 욱먹게 했는걸. 아니, 다 저 봄향이때문이야.)

그러나 살금살금 가재걸음을 하던 나는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부엌바닥에 쿵-하고 미끄러졌습니다.

《아- 야.》

비명소리가 울리는것과 동시에 아래방에서 어머니와 동무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영림아.》

《어...머...니.》

나는 한쪽엉치를 슬슬 문지르며 뜨직뜨직 대답했습니다.

《원, 애두. 동무들이 학습반을 하러 왔는데 넌 어딜 갔됐느냐?》

나는 말없이 머리만 긁적거렸습니다.

《호호호. 어머니, 아마 영림동문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가다가 락하훈련을 한 모양이예요. 맞지? 영림동무.》

《어영? 그... 그래. 헤헤헤-》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봄향이의 말을 들으며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하-》

어머니도 동무들도 모두 웃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가 공부들을 해라.》

이어 웃방 한가운데는 잔치집 큰상처럼 길다란 밥상이 두개나 맞붙여졌습니다.

나는 봄향이의 눈치를 힐끗힐끗 훑쳐보면서 일남이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 앤 숙제가 끝나기 바쁘게 또 연소리를 꺼내겠지. 오늘숙제 많으면 좋겠다.)

나는 달팽이걸음처럼 느릿느릿 숙제장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숙제문제는 모두 내가 좋아하는 지능문제들이었습니다.

어느새 품었던 생각은 말짱 달아나버리고 나는 문제풀이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마지막 한문제가 남았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책상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그 바람에 내옆에 앉아 문제풀이를 하던 일남이가 와뜰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저거, 벌써 다 했니? 넌 정말 수재다

야, 수재.》

일남이는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아직 두문제나 남은 자기의 숙제장과 나의 숙제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에야 나는 《아차!》 하며 이마를 탁 쳤습니다.

늦장을 부리자던 노릇이 그만...

나는 얼른 숙제장을 앞으로 끄당기며 도리머리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문제가 남았어. 정말 힘든 문제야.》

나는 일부러 힘든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숙제문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비행기는 무엇을 보고 착상하였는가?》

히-야! 나는 사기가 났습니다. 만세라도 한바탕 소리쳐부르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비행기라는 말만 들으면 꿈속에서조차 화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나군 하였으니깐요.

나는 학습장에 꺾꺾 힘을 주며 눌러썼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착상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 써넣고보니 웬일인지 답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비행기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그리고 동무들이 깜짝 놀랄만 한 답을 써넣고싶었던것입니다.

이때 저편에 앉아있던 봄향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영림동무, 내가 준 기억기에 있던 자료들을 보았니?》

《?》

봄향이는 생글생글 웃더니 다시 제자리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혹시?)

나는 얼른 바지주머니안에서 기억기를 찾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기억기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나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뭘, 뭐라구? 이거 정말이야?》

내가 어찌나 큰소리로 떠들었던지 숙제공부를 하던 동무들이 내옆으로 욱 밀려왔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앉아있던 일남이가 컴퓨터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 인간은 연으로부터 비행에 대한 착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은 날아다니는 새나 바람속에서 날리는 나무잎을 보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연은 후에 비행기의 발명을 계발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나는 두눈을 크게 뜨고 봄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봄향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연피우기를 정말 잘했대. 설명절이나 명절같은 기쁜 날이 오면 하늘에 연을 띄우고 연싸움이랑 하면서 누구의 연이 제일 높이 나는가, 또 누구의 연이 제일 쎈가 내기를 했대. 참, 동무들은 비행기처럼 하늘을 나는 기구를 세계에서 제일 선참 만든 사람들이 누구들인지 알고있니?》

봄향이는 동무들을 한번 둘러보고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었어. 먼 옛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기구인 비거라는것을 만들었대. 우리 나라에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걸 타고 하늘을 훨훨 날면서 물리쳤다는거야.》

호기심이 가득어린 나의 두눈이 삼박거렸습니니다.



《나두 책에서 보았어. 비거는 임진왜란 때 우리 선조들이 처음으로 만들어 타고다닌 활공기라나.》

성복이가 아주 시뚱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거는 사람을 태우고 30리라는 매우 먼 거리를 날았어. 수리개모양으로 생긴 비거는 땅에서도 달릴수 있었고 령이나 산성 같은데서도 달리다가 하늘높이 날았는데 우리 선조들은 그것으로 군사통신연락을 수행했다는거야.》

봄향이는 성복이의 말을 들으며 하얀 옥이를 살짝 드러냈습니다.

《가만있자. 애들아, 여길 좀 봐.》

이번에도 일남이가 큰소리로 컴퓨터화면에 찍여진 글들을 읽었습니다.

《비거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나는 수단은 도이쉴란드에서 처음으로 구상하였으나 그것은 구상에만 머무르고 실용되지는 못하였다.》

나는 제격 속셈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진조국전쟁이 1592년에 있었으니까.

《야! 그러니 우리 나라에서 비행기의 령사는 다른 나라들보다 300년씩이나 앞섰구나.》

나는 입이 함박만 해서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이때 일남이가 내 옆구리를 꼭 짚었습니다.

《야, 영림아. 너 정말 그럴수 있니? 비행기의 조상을 모르는척 할수 있냐 말이야. 〈손자〉 라는게. …》

《췌, 〈손자〉 인가? 〈증손자〉 아니, 〈고손자〉 아니, 고, 고, 고, 고-》

성복이가 자라처럼 목을 한껏 뽑으며 숨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하하-》

《호호호-》

동무들은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리며 마지막숙제문제의 답을 신이 나서 써넣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얼굴이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확 달아올랐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때마침 동생이 찾지 않았더라면...

《형, 새로 나온 〈소년장수〉를 해.》

《야! 〈소년장수〉한대.》

우리는 텔레비죤앞에 병아리들처럼 오구구 모여들었습니다.

어찌나 만화영화에 홀딱 빠졌는지 모두 두 귀를 베여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일남이는 얼마나 재미나게 보는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화영화가 끝나기 바쁘게 성복이는 《호비》가 되어 동무들앞에서 방금 본 재미나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였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우리들앞에 썩떡과 록두지짐을 놓아주었습니다.

《야! 록두지짐!》

아무때 보나 푸집 좋은 성복이가 어느새 록두지짐 한작을 한입 몽텅 베어물고 짹 짹 소리까지 내다가 죽을것처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왜 그래? 목에 걸렸니?》

나는 얼른 고뿌에 시원한 과일단물을 꿀꺽 부어주었습니다

입에 문것을 꿀꺽 넘긴 성복이는 도리머리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 굉장히 맛있어서 그래. 야! 정말 맛있다야.》

성복이는 또 한입 베어물더니 너무 좋아해— 하고 웃었습니다.

동무들도 모두 새우처럼 허리를 까부리고 웃었습니다.

《애두 참.》

어머니는 성복이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여기 이 록두지짐이랑 썩떡이랑은 봄향이 가겨온거다.》라고 하시는데였습니다.

《봄향이요?》

나는 두눈이 휘둥그래져서 봄향을 결는 질하였습니다.

봄향이는 나팔꽃처럼 연연한 얼굴에 수집음을 한껏 지으며 《우리 할머니가 보내주셨어.》라고 말했습니다.

봄향이의 손을 꼭 잡은 어머니가 우리를 둘러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츰 민속놀이경기를 한다지? 우리 영림이는 연피우기경기에 선수로 뽑혔구.》

어머니는 나를 아주 대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여기 이 음식들은 이번에 진행한 전국 민족료리경연에서 1등을 한 음식들이라더라. 민속놀이경연에 참가하는 너희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민속음식을 먹이고싶다며 봄향이 할머니랑 그리구 또 봄향이랑... 그러니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이번에 진행하는 민속놀이경기에서 꼭 1등을 해야 한다. 알겠니?》

《알겠어요.》

동무들은 서로서로 엄지손가락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봄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봄향이는 여전히 꽃처럼 곱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있었습니다.

《영림동무! 이번 민속놀이경기에서 우리 모두 꼭 1등을 하자.》

봄향이는 어느새 마련해가지고 왔는지 연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나의 가슴에 꼭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그 무엇인가가 가슴 가득 마쳐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나는 동무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만화영화 《소년장수》의 주제가를 씩씩하게 불렀습니다.

등등 등등 출전복을 울려라

펼펼 펼펼 기발높이 날려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제일 좋아하던 만화영화 《소년장수》!

그것은 아버지원수님께서 자랑스러운 우리 나라의 역사를 더잘 알고 우리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만들어주신 사랑의 만화영화였습니다.

나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내가 쓰는 민들레학습장, 날마다 메고다니는 《소나무》책가방, 우리가 운동장에서 기쁨속에 힘껏 차는 《대성산》축구공 그리고 우리가 입은 교복과 우리가 쓰고사는 멋쟁이살림집,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하시는 공장마다에서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맛있고 영양가높은 우리의 당과류들...

이 모든것 역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라고 아버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귀중한 우리의것이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동무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노래를 부를수록 나의 마음속에서는 봄향이에 대한 고까운 생각도 따스한 햇빛을 받은 고드름처럼 녹아내리고있었습니다.

나를 연띠우기경기에 선수로 추천해주고 연에 대한 자료까지 안겨준 봄향이.

연띠우기에 대한 그릇된 나의 생각을 깨우쳐주려고 동무들과 함께 학습반도 오고 맛있는 민족음식과 연을 만들 재료까지 마련해가지고온 동무.

정말이지 나를 깨우쳐준 봄향이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가슴속에 차오를수록 연띠우기는 단순히 놀음놀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것에 대한 사랑,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를 안겨주며 애국의 큰마음을 키워주는 귀중한 우리의 자랑이였습니다.

우리의것에 대한 사랑,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

이것이 있어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저 푸른 하늘을 썩썩 날고 우리의 로켓들이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짹짹 날아오르는것이였습니다.

이것이 있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만리마기수가 되는것이였습니다.

《분단위원장동무!》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부름말이 튀어나갔습니다.

학교에서나 분단모임에서 마지못해 입에 올려던 부름, 그 부름이 가슴속에서 진정으로 올려나왔던것입니다.

나는 문득 생각되는바가 있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뒤울안에 차던졌던 제기를 찾아 동생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복림아, 날 용서해. 형이 정말 미웠지?》

《아니, 난 우리 형이 제일 좋아.》

나는 제기를 들여다보며 기뻐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복림아, 이 제긴 저 봄향누나가 너에게 찾아준거야.》

나의 마음을 알기나 한듯 동생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연띠우기경기에서 꼭 1등을 해해.》

《그래.》

봄향이와 분단동무들이 나를 정답게 바라보았습니다. 봄향이의 고운 두눈이 별보다도 더 밝게 반짝이고있었습니다.

x

연이 올랐습니다.

해님이 눈부시게 빛을 뿌리는 맑고 푸른 하늘우에 용감한 참매처럼 우리의 연이 높이높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말할것 없고 구역에서 진행한 연띠우기경기에서까지 단연 1등을 쟁취한 내가 이번에는 위대하신 대원수님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지켜보아주시는 김일성광장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연을 썩썩 올렸던것입니다.

《영림동무! 정말 잘해!》

《야! 우리 학교 연이 제일 높이 난다!》

우리 분단위원장동무와 사랑하는 분단동무들이 모두 기뻐하며 두손을 흔들어줍니다.

나의 동생과 어머니, 동네사람들도 모두 기쁨의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쳐줍니다.

내가 날리는 연이 제일 높이 날아오를수록 동무들은 나의 이름과 우리 학교의 이름을 더 크게크게 웨쳤습니다.

나의 눈앞에는 크나큰것이 비껴들고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은빛날개, 초음속비행기에서 반짝이는 빨간 오각별이였습니다.

나는 만리창공으로 끝없이 나래퍼는 우리의 꿈, 우리의 연을 바라보며 연줄을 풀고 또 풀었습니다.

(연아, 연아, 올라라. 하늘높이 올라라. 우리의 자랑, 우리의 희망, 우리의 꿈을 모두 담아시고 훨훨 날아오르거라.)